

경사노위, 청년일자리 정책 사회적 대화 개시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출범



▲ 5월 20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는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과 경력 개발 지원, 고용의 질 향상 및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8명(청년공익위원 2명 포함)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발족일로부터 1년간('26.5.20.~'27.5.19.) 운영된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청년 정책·고용서비스·직업훈련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 현장 실무자들이 폭넓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는 이번 위원회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논의

과정에 직접 반영하고, 청년 간담회·지역별 Round-Table·청년일자리 인식조사 등 다양한 현장 중심 논의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AI 대응 청년취업 지원 강화, ▲청년 현장중심 훈련·일경험 확대, ▲중소기업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역 청년 생활안정 지원 등을 핵심 의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청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노·사·정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만드는 실사구시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논의과정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의미있는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익 위원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노동계 위원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총괄실장	김봄이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
경영계 위원	이상철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		유민상	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정책기획팀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부 위원	하창용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상훈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 국장		최예슬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벨딩 청년도전지원팀 팀장
				홍경연	동서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진로상담사

권혜원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노동시장의 '쉬었음' 증가와 일자리 격차 문제는 산업·기술 전환과 노동 시장 이중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구조적·사회적 과제"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장 중심·근거 기반·실행 중심의

논의를 추진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SIC**

담당 전문위원실 최은영 전문위원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 발족

- AI 전환에 따른 산업·노동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본격화 -



▲ 5월 22일, 'AI 상생위'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2일,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이하 'AI 노사상생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AI 노사상생 위원회」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과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의 쟁점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노사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 위원 3명, 경영계 위원 3명, 정부 위원 4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발족일부터 1년간 운영(26.5.22.~27.5.21.)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AI 도입 및 활용의 영향과 실태 ▲노사상생 AI 활용 및 직무변화 대응 방안 ▲AI 데이터 수집 활용 수용성 제고방안 ▲AI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의 AI 도입·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방문과 전문가 발제, 노·사·정 및 공익위원과의 논의를 병행하여 실태에 기반한 현장감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주제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위원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먼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사노위에서 작년(2025.1.~11.) 운영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의 녹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 후,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현장 AI 도입 실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산업과 노동, 노사관계의 질서가 함께 재편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며, “AI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노동분야의 일자리 구조 변화를 어떻게 함께 결정하고,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덕순 AI 노사상생 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이 아니라 AI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직무와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노사정의 실효성이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상적인 찬반 논의에 머물지 않고 AI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노동자와 기업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살펴 보는 데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노동계 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경영계 위원	김홍성	한국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
	추재욱	중견기업연합회 산업정책팀장
정부 위원	김형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신상훈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최연우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관
공익 위원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사노위는 AI 노사상생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발제·토론 의견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산업·노동 변화 노사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slc**

담당 전문위원실 김준년 전문위원

3기 「비정규직위원회」 출범

- 비정규직·권리 밖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 -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정찬호 3기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5월 2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의제별 위원회로, 지난 1·2기* 활동 이후 약 3년 만에 다

시 출범하였다. (*1기: '20.8.4.~21.8.3., 2기: '21.11.1.~22.10.31.)

이번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하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다양한 현장 단체들의 참여로 비정규·플랫폼·프리랜서·지역 노동 현장의 대표성과 현장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앞으로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등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필요시 의제별 팀회의를 병행 운영한다. 회의에서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과정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정찬호 준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지난 1·2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내고자 한다”며,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 3기 「비정규직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
위원	김성호	한국노총 조직확대사업단 실장
	박미경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박희정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이사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신언직	풀빵 노동공제연구원장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이정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확산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체감적 논의와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단체와 조직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표성과 현장성이 한층 확대되었다”며, “3기 비정규직위원회가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화·정부·현장과의 지속적 연계와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SC**

담당 전문위원실 손영우 전문위원

3기 「청년위원회」·「여성위원회」 발족

- “청년·여성” 노동·현실 반영한 계층별 사회적 대화, 3기에서 본격화 -



▲ 경사노위는 5월 29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3기 청년위원회'를 발족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3기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계층별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층의 고충과 의제를 발굴하고 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기 「청년위원회」는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하여



▲ 5월 29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3기 여성위원회'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최미라 3기 여성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청년모임 마니또,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첫 회의에서 3기 청년위원회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년위원회」는 청년 고용 위기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미취업 청년, 재직 청년, 지역 청년 등 다양한 노동·고용 현실에 놓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현장고충과 경험등을 바탕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 청년들과 소통하고 지역 청년의 이탈 문제와 중소도시 일자리의 복리후생 여건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 현실과 다양한 의견들을 청년 위원회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3기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여성 노동 정책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모색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특히 돌봄·요양·급식, 보건의료, 서비스, 상담 등 여성 노동 의제에 대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여성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사회적 대화'로서 함께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3기 여성위원회는 여성노동연대회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참여해 현장성과 대표성을 한층 강화했다.

여성위원회는 앞으로 ▲여성 노동자의 감정노동과 안전, ▲여성 저임금 직종 처우 개선 방안, ▲가사·돌봄노동 제도 및 인식 제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대응, ▲AI 전환 대응과 여성 고용안정 등을 핵심 의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은 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사회적대화에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각 계층 당사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다스리 3기 「청년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번 3기 청년

< 3기 「청년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 위원장
위원	김 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
	이채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차장
	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
	임윤수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청년모임 마니또 정책부장
담당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3기 「여성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위원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정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장인숙	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
	권미경	공공연대노련 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류용진	화학노련 부위원장
	김승자	섬유·유통·건설노련 사무처장
담당	최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본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미라 3기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취약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제도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위원회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맞닿아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연석회의 등을 통해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slc**

담당 전문위원실 최은영·신정민 전문위원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발족

-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본격화 -



▲ 5월 29일 오전, 경사노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회 참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전,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노동시간단축추진단 후속논의 ▲퇴직연금제도 기능강화 후속논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우선 논의 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본위원회 준비과정에서 ‘노·사가 제안한 의제를 지속해서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에도 운영기간을 연장해서 운영될 전망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입장 차이를 넘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재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간, 퇴직연금,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은

<「S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계 위원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경영계 위원	남용우	한국경총 상무
	황용연	한국경총 이사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 본부장
정부 위원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공익 위원	권 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노사관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고 언급하며, “위원회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현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체회의와 개별·집단 분야 집중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sc**

담당 전문위원실 손영우 전문위원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 발족

- K-컬처 산업 성장에 따른 변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논의 -



▲ 경사노위는 5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연구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는 K-컬처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와 창작·노동 환경의 현안을 살펴보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창·제작 인력의 권리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K-컬처 산업은 영상, 웹툰·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진출을 확대하며 우리 경제와 문화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기반 제작, 프리랜서 중심 활동,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대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인력활용 체계, 창작·노동 환경, 수익·유통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회는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노동계 위원 2명, 경영계 위원 2명, 정부 위원 2명, 전문가 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발족일부터 최대 1년간 운영된다.

연구회는 앞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K-컬처 산업별 인력활용 체계 진단 ▲창작·노동 환경 및 역할 구조 ▲수익 구조 및 유통 체계 ▲창·제작 인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OTT 확산,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대, AI 기술 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가 콘텐츠 제작 방식과 계약 관행, 인력활용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영상 분야와 웹툰·만화 분야를 비롯한 주요 장르의 창작·노동 환경 관련 현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연구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세부 논의 주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이후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경제연구센터장이 “K-컬처 산업구조 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쟁점”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위원 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K-컬처의 성장은 창작자와 실연자, 기업과 플랫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노력과 협업으로 만들어 온 성과”라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렬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 좌장은 “K-컬처 산업은 장르별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 인력활용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산업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좌장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노동계 위원	김승훈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부국장
	이재민	한국만화가협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 소장
경영계 위원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부 위원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차지원과장
전문가 위원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박찬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경제연구센터장
	이중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
	홍난지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콘텐츠스쿨 교수

이어 “연구회에서는 영상, 웹툰·만화 등 주요 분야의 산업구조 변화와 창작·노동 환경, 수익·유통 체계, 사회안전망 관련 쟁점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연구회에서 제시되는 발제·토론 의견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K-컬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제작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sic**
담당 전문위원실 김준년 전문위원

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발족

- 물가·세금·사회보험료 등 체감소득 높이는 실질소득 향상 논의 -



▲ 6월 2일, 경사노위는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일 오후,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사 대표 위원 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

최근 노동자가 체감하는 실질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되었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임금 등 명목소득, 물가, 조세 및 사회보험, 각종 사회보장급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앞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가 노동자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 ▲현금급여의 실질가치 하락과 지원효과 변화, ▲사회복지제도의 노동자 소득 재분배 효과 및 영향 추정,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영향 추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상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실질소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조세, 사회보험료, 현금급여, 물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동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연구회 좌장은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은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소득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과 조세·사회보험료 부담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여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현금급여 역시 단순한 명목금액보다 노동자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혜택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sic**

담당 전문위원실 김태환 전문위원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노동계 위원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경영계 위원	이승용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 경제분석팀 팀장
	최희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부부장
정부 위원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 과장
	이미희	재정경제부 노동시장경제과 과장
전문가 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